

[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알림]

황토종합건설 배수펌프장 증설 공사 현장 낙하 사고 件

안전기획팀
'22.09.05. 17:00

□ **시공사** : (주)황토종합건설 (2022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519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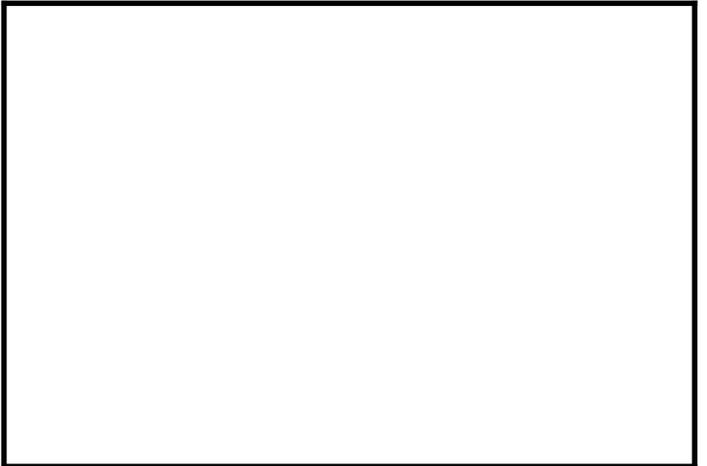
□ **현장개요**

- 현 장 명 : 봉성 제3배수펌프장 증설 공사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73번지 일원)
- 공사금액 : 475억
- 공사기간 : 2018년 01월 ~2023년 06월

□ **재해내용**

‘22.09.03(토) 8시 27분경 카고크레인(25t)을 이용하여 가공철근(약1.5t) 하역작업 중 크레인 붐대가 부러져 하부 신호수가 머리에 맞아 병원 이송 중 사망”

□ **재해사진**



□ **피해상황**

- ▷ 인적피해 : 1명 사망
- ▷ 물적피해 :

□ **사고원인 추정**

- ▷ 크레인 양중작업시 낙하위험구간(양중물 및 붐대 하부) 출입 및 노후 크레인 육안 및 비파괴 점검 미실시
- ▷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 진행중

□ **당사 현장 조치사항**

- ▷ 재해사례 전파
- ▷ 상기 사고 사례에 따른 중량물 양중작업 위험성평가 반영 및 안전대책 수립
- ▷ 크레인 작업시 육안점검 및 비파괴 검사 여부 확인

■ 언론 보도자료(KBS 외)

김포 공사장 크레인서 철근 추락해 60대 노동자 숨져



경기 김포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철근 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어제(4일) 오전 8시 반쯤 김포시 양촌읍의 한 배수펌프장 증설 공사 현장의 25톤 크레인에서 철근 더미가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 신호수 역할을 하던 63살 A 씨가 철근 더미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A 씨는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담당하는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공사 물품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크레인의 '붐대'가 부러지며 철근 더미가 떨어졌고, A 씨가 이 더미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공사현장에서는 지상에 있던 철근 더미를 6미터 아래에 있는 지하 작업장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경찰 등에 "철근 더미 무게는 1.5톤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공사 대금이 50억 원 이상인 것을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